

# 생사일대사혈맥초

(WND(영문 어서) 216~17쪽, 어서 전집 1337쪽)

그러하므로 구원실성(久遠實成)의 석존과 개성불도(皆成佛道)의 법화경과 우리들 중생의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고 깨달아서 묘호런계교라고 봉창하는 비를 생사일대사(生死一大事)의 혈맥(血脈)이라고 하느니라. 이 일은 다만 니치렌의 제자 단나 등의 간요(肝要)이며, 법화경을 가진다고 함은 이것이로다. 결국 임종(臨終)이 지금이라고 일어서 신심을 다하여 남묘호런계교라고 부르는 사람을 ‘사인명종위천불수수(是人命終爲千佛授手), 영불공포 불타의취(令不恐怖 不墮惡趣)’라고 설하셨느니라. 기쁘도다, 일불(一佛) 이불(二佛)도 아니고 백불(百佛) 이백불(二百佛)도 아닌 천불(千佛)까지도 마중을 나오시어 손을 잡으실 것이니, 환희의 감루(感淚)를 금할 길이 없도다. 법화불신(法華不信)의 자는 ‘기인명종(其人命終) 입아비옥(入阿鼻獄)’이라고 설해져 있으니 필경오옥줄이 와서 손을 잡으라기 없도다 기 없도다. 십왕(十王)은 재단(裁斷)하고 구생신(俱生神)은 가책하리다.

이제 니치렌의 제자 단나 등 남묘호런계교라고 봉창하는 자에게 천불(千佛)이 손을 내미시라라는 것은 비유컨대, 오아나 박이 텅 굴손을 내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라. 과거에 법화경의 결연(結緣)이 강성하였기 때문에 현재에 이 경(經)을 수지하니 미래에 불교(佛果)를 성취할 것은 의심할 바 없느니라. 과거의 생사(生死)와 현재의 생사(生死)와 미래의 생사(生死), 이 삼세(三世)의 생사(生死)에서 법화경과 떨어지지 않는 것을 법화의 혈맥상승(血脈相承)이라고 하느니라. 방법불신(謗法不信)의 자는 ‘즉단일체세간불종(卽斷一切世間佛種)’이라고 하여 성불할 중지를 단절하는 고로 생사일대사의 혈맥이 없는 것이니라.

총하여 니치렌의 제자 단나 등은 자타파차(自他彼此)라는 마음없이 수어(水魚)라고 생각을 해서 이체동삼이 되어 남묘호런계교라고 봉창하는 비를 생사일대사의 혈맥이라고 하느니라. 더구나 지금 니치렌이 흥통하는 비의 구극은 이것이니라. 만약 그렇다면 광선유포의 대원도 이루어질 것이니라. 더군다나 니치렌의 제자 중에 이체이심(異體異心)의 자가 있다면 예컨대 성(誠)인에 있는 자가 성을 파괴하는 것과 같으니라.

## 배경

‘생사일대사혈맥초’는 니치렌 대성인 (당시 51세)께서 1272년 2월11일 유배지인 사도의 츠키하라에서 쓰시어 사이렌보 니치쥬에게 주신 어서이다. 인본존의 대상을 밝히신 ‘개목초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 당시는 대성인께서 사도에 도착하신 지 3개월 후로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막 시작되려는 시기였다. 대성인께서 생사일대사혈맥초를 쓰시기 전인 1월16일과 17일에는 쓰카하라 문답이 열렸다. 사도에서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많은 승들이 대성인과 법문 대결을 펼치기 위해 모여들었으나, 대성인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게 된다. 이후 고조된 정도중 신도들의 반감으로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신 대성인은, 후에 보은초에서 “오늘 자른다 내일 자른다”고 하면서도(어서323쪽)”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바로 이 때, 고우와 이부쓰보 등 많은 제자들이 대성인의 대경애에 감동 받아 입신하였고, 사이렌보 역시 쓰카하라 문답 직후 신심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강의에서는 먼저 ‘생사일대사혈맥’이라는 어서의 주제와 제목을 살펴보게 된다. 생(生)과 사(死)는 영원히 반복되는 생명의 두 가지 단면으로 윤회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생과 사는 윤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통을 나타내기도 한다. ‘일대사란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의 중요한 알 혹은 가장 중요한 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생사의 가장 중요한 알’이란 바로 생명 구극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된다. ‘혈맥’이란 불법이 부처에서 중생으로 울버로 전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면 이 어서의 제목은 ‘생명구극의 불법이 부처에게서 중생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이렌보는 본래 천태종의 학승이었다. 당시 천태종에서는

여러 종파가 자신들의 가르침을 구전(口傳)으로 전해오고 있었고, 그 구전 가르침을 기록하여 상자나 가방에 보관해 두고 선택 받은 소수의 제자들만 비밀의식을 통해 전수 받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불법 가르침의 전수는 주로 권위주의나 신비주의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심지어는 전수된 내용이 타무니없는 가격에 팔리는 일도 있었다. ‘혈맥’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피의 흐름’이라는 뜻이므로 때로는 승려의 아들을 포함한 그 친척들에게 전수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불법의 혈맥상승의 동등성이 타락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혈맥상승 방법의 견지에서 많은 승려들이 불법의 혈맥상승의 주체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어서는 불법 혈맥상승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사이렌보의 질문에 대한 니치렌 대성인의 답서이다.

## 키 포인트

니치렌 대성인은 이 어서에서 불법의 혈맥을 상승하기 위해 신심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자담하시고 있다.

- ❖ 첫째, 부처와 법화경과 중생은 모두 남묘호렌게교이므로 이 셋이 전혀 차별이 없다고 믿으며 제목을 부르고 신(信)과 행(行)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전혀 차별이 없다고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구극의 부처의 생명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모습으로 불계의 생명을 용현해 갈 수 있다. 이는 간단히 말하면 자발적인 신심을 수행하는 것이다.
- ❖ 둘째, 법화경의 혈맥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심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삼계에 걸쳐 신심을 지속하는 것이다. 현재로 말하면 평생 지속하는 신심을 통해 혈맥상승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대성인께서는 당시 불교계에 만연했던 소수 특정한 위주의 형식주의, 권위주의적 혈맥상승의 가르침에 반박하시며, 혈맥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심 이외에는 없다고 쓰시고 있다.
- ❖ 셋째, 이체동심의 단결로 제목을 부를 때 혈맥상승은 물론 광선유포라는 대원도 성취할 수 있다.

## 강 의

### 1) 생명은 남묘호렌게교의 당체

**“구원실성(久遠實成)의 석존과 개성불도(開成佛道)의 법화경과 우리들 중생의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고 깨달아서 묘호렌게교라고 봉창하는 바를 생사일대사(生死一大事)의 혈맥(血脈)이라고 하느니라. 이 일은 다만 니치렌의 제자 단나 등의 간오(間遇)이며, 법화경을 가진다고 함은 이것이로다.”**

대성인께서는 생사일대사의 혈맥상승을 위한 신심의 자세에 대해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제시하시고 있다.

첫째, 구원에 성불한 석존과, 모든 중생이 부처라는 법화경과, 우리들 중생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시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니치렌의 제자 단나의 신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간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남묘호렌게교를 봉창하면 생사일대사의 혈맥상승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시고 있다. 구원실성의 석존은 셀 수 없을만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바세상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할 부처이다. 게다가 부처는 중생을 자유롭게 하는 영원불멸의 묘호렌게교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석존은 생명이야말로 우주 근본의 법인 남묘호렌게교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성불할 수 있었다. 구원에 성불한 석존은 법화경에서 영원불멸의 묘호렌게교를 수지한 부처의 생명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법화경 이외의 경전에는 이승(성문, 연가), 여자, 그리고 악인은 성불할 수 없다고 설해져 있다. 그러나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똑같이 부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남묘호렌게교야말로 성불을 가능케 하는 근본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법화경은 또한 만인성불은 부처의 진정한 사명이자 서원이었으며, 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 영원히 투쟁하는 사람을 부처라고 묘사하고 있다. 게다가 부처의 서원을 자기의 것으로 하여 모든 중생의 성불을 위해 투쟁하는 지용의 보살의 중요한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성불의 진정한 인(因)이 생명본질의 법인 묘호렌게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모든 사람들을 불계로 이끄는 법화경을 묘호렌게교 자체로 볼 수 있다. 앞서 대성인께서는 일체중생의 당체는 묘호렌게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구원실성의 석존”과 “개성불도의 법화경”과 “우리들 중생”은, 부처와 그 가르침과 중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묘호렌게교의 당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셋이 모두 묘호렌게교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는 것이다.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은 부처와, 부처가 가르친 정법과, 우리들 중생이 묘호렌게교의 당체로서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을 믿는다는 것은 이 점을 믿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전경의 가르침은 부처를 평범한 중생들과는 동떨어진 초월적인 존재로 보는 차별적인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법화경은 이런 엘리트적 사고방식에 반박하여, 부처와 중생은 동등한 존재이며 묘법을 신수한 사람이 곧 부처라고 가르치고 있다.

니치렌 대성인 역시 평범한 중생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일생을 통해 부처와, 부처의 올바른 가르침과, 중생은 본질적으로 묘호렌계교의 당체이며, 따라서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더욱이 근본 묘법인 남묘호렌계교를 신심의 수단으로 동일시하여 남묘호렌계교를 어본존의 모습으로 도현해 주셨다. 그러므로 대성인께서 도현해 주신 어본존에 대한 확신을 갖고 대성인이 하신 것처럼 제목을 부르게 되면, 우리 중생의 생명 속에서도 그와 같은 불계의 생명을 융현할 수 있는 것이다.

18세기초 니치렌 불법을 수호하신 니치칸 상인은 “우리가 어본존을 믿고 수지하여 남묘호렌계교라고 봉창하면 우리 자신이 일념삼천의 당체인 니치렌이 된다” (니치칸 상인 문답서 548쪽) 라고 말씀하셨다.

대성인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제목을 부르라고 격려하시고 있다. 깨달음이라고 해서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석존과 법화경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들어도 이 사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대성인께서는 신심을 통한 깨달음, 활동을 통한 확신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오저에서부터 “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신심과 활동을 통해 확신을 체득해야 하는 것이다.

부처, 법화경 그리고 우리들 중생이 하나이며 동등하다는 확신을 갖고 제목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일생 성불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목을 부른다는 것이며, 반드시 공덕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제목을 부른다는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통해 생사일대사의 혈맥상승도 가능한 것이다.

남묘호렌계교야말로 우리들 생명의 성불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자발적인 신심으로 제목을 부를 때 생사일대사의 혈맥 상승도 이루어진다.

대성인은 “일생성불초에서 “단 남묘호렌계교라고 부르며 수지한다 해도 만약 기심(己心)의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묘법이 아니라 추법(추법)이다. (어서383쪽)” 라고 쓰시고 있다. 또한 대성인께서 “우리들 중생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성불뿐 아니라 일체중생의 성불을 위해 제목을 봉창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광선유포를 위한 신심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대성인의 마음이다. 자신의 성불과 광선유포를 위해 제목을 부를 때 생사일대사의 혈맥이 상승되는 것이다.”

## 2) 생명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개발

**“결국 임종(臨終)이 지금이라고 알아서 신심을 다하여 남묘호렌계교라고 부르는 사람은 ‘사인명종위천불수수(是人命終爲千佛授手), 영불공포 불타악취(令不恐怖 不燒惡臭)’라고 설하셨느니라. 기쁘도다, 일불(一佛) 이불(二佛)도 아니고 백불(百佛) 이백불(二百佛)도 아닌 천불(千佛)까지도 마중을 나오시어 손을 잡으실 것이니, 환희의 감투(感鬪)를 금할 길이 없도다.”**

대성인께서는 “임종이 지금이라고 알아서”라는 구절에서 생사일대사의 혈맥상승을 위한 자발적인 신심의 자세를 설명하시고 있다. “임종이 지금이라고 알아서”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엄연한 생명의 본질을 깊이 간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올바른 불법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살아있는 오늘의 중요함에 눈뜨게 되고, 진지한 신심의 자세를 갖게 된다. “임종장념”이란 매일 매일 매순간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뜻이다.

죽음은 삶 전체를 한 순간에 정리하는 생명의 마지막 종착역이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힘을 가졌다 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지만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후회없이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임종장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된다. 그렇게 진지하게 제목을 불러가는 사람은 최고의 생명경애를 확립하여 반드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즐겁고 평화롭게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된다.

대성인께서는 법화경 28품 보현보살권발품의 구절을 인용하시어 임종장념의 자세로 제목을 봉창하는 사람의 생명경애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시고 있다. “이들의 생이 마지막에 이르면 두려움이 없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천불의 손에 이끌리게 될 것이다”

인간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보통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나 일생 동안 올바른 불법을 수지해 온 사람은 천불이 손을 내미는 것처럼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전우주의 작용이 죽은 후에도 또 후세에도 이들을 보호하여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대성인의 약속이다.

또한 대성인께서는 “일불(一佛) 이불(二佛)도 아니고 백불(百佛) 이백불(二百佛)도 아닌 천불(千佛)까지도 마중을 나오시어 손을 잡으실 것이니, 환희의 감투(感鬪)를 금할 길이 없도다.”라고 쓰시면서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정토종의 교리에 반박하시고 있다.

정토종은 아미타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임종시 아미타와 두 보살이 마중을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대성인께서는 평생 묘법을 신수한 사람들은 “백불 이백불도 아닌 천불까지도 마중을 나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하지만 법화경을 믿지 않고 방법을 저지르는 자는 법화경 3장에 “죽음의 순간이 되면 아버지옥에 떨어진다. (법화경 74쪽)”라고 쓰여진 것처럼 끊임없는 고통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죽음의 순간에 우리 생명경애에 반영된다. 어느 누구도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불신의 자는 법화경에 나타난 대로 끊임없는 고통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대성인께

서는 이것을 “옥돌이 와서 손을 잡으리라”라고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죽음의 세계의 “십왕(十王)”은 죽은 자가 생전에 저지른 죄업을 심판하고, “구생신(俱生神)”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행동의 선악을 기록하여 염나왕에게 보고한다고 한다. 물론 십왕과 구생신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엄한 인과의 법칙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도덕성을 인식하고 존재의 비영속성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삶 동안 어떻게 가치를 창조해 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 인간은 이러한 깨달음을 무시해 버리고 죽음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언젠가는 더 잘 할 수 있겠지,’ 이 다음에 열심히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며 자신의 일생을 하찮은 일로 낭비하고 있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진정한 보물을 쌓지 못한 채 삶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창기학회 2대 도다 조제이 회장선생님께서 “죽음을 위해 신심을 단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확실한 것을 말한다면 죽음보다 더욱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다. 주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마음의 재보를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치러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채 순간의 즐거움만을 쫓아 시간을 보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생사 그 자체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 생사와 비교한다면 그 외의 것은 작은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의 순간에 이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법화경의 지혜 4권 280쪽)

### 3) 삼세에 걸쳐 신심을 수지

**“이제 니치렌의 제자 단나 등 남묘호텐게쿄라고 봉창하는 자에게 천불(千佛)이 손을 내미시러하는 것은 비유컨대, 오아나 박이 덩굴손을 내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라. 과거에 법화경의 결연(結緣)이 강성하였기 때문에 현재에 이 경(經)을 수지하니 미래에 불과(佛果)를 성취할 것은 의심할 바 없느니라. 과거의 생사(生死)와 현재의 생사(生死)와 미래의 생사(生死), 이 삼세(三世)의 생사(生死)에서 법화경과 떨어지지 않는 것을 법화의 혈맥상승(血脈昇進)이라고 하느니라. 방범불신(防範不信)의 자는 ‘즉단일체세간불중(卽斷一切世間佛種)’이라고 하여 성불할 종지를 단절하는 고로 생사일대사의 혈맥이 없는 것이니라.”**

대성인께서는 이 구절에서 생사일대사의 혈맥상승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인 삼세(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끝까지 신심을 버리지 말고 수지할 것을 설명하시고 있다. 현재에서 본다면 영원한 신심이란 평생 퇴전하지 않고 신심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대성인께서는 현재에서 법화경을 수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법화경과의 깊은 인연이 있어야 하며, 일생 동안 법화경을 수지하면 미래에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에 걸친 불법의 인과이다. 인과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 현재의 모든 행동의 결과가 죽음의 순간에 정리되어 나타나고 죽음을 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대성인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생사에 걸쳐 깊은 신심을 수지하는 것이 법화경의 혈맥이라고 말씀하셨다. 전통적으로 불도수행자의 혈맥상승은 스승에서 제자로 직접 전해지는 상승을 일컫는 것이었으나, 대성인은 법화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혈맥상승이란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자가 진지하고 지속적인 신심을 해 나가는 데 있다고 명시하시고 있다. 그러므로 삼세에 걸친 불퇴전의 신심을 관철함으로써 본불인 니치렌 대성인의 생령에 흐르는 생사일대사의 혈맥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화경을 믿지 않거나 비방하는 자는, 비유품에 ‘즉단일체세간불중(卽斷一切世間佛種) - 일체세간의 불종을 단절한다’라고 나와있듯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성불의 종지를 단절하는 것이 된다. 법화경의 혈맥은 신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어본존을 믿고 자신의 성불과 광선유포를 위해 신심을 지속해 가는 한 법화경의 혈맥을 상승할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퇴전하게 된다면 법화경의 혈맥상승은 단절되는 것이다.

불법에는 장년이 없다. 또한 인생에도 장년은 없다. 끊임없이 법을 위해, 민중의 행복을 위해 일생동안 성심껏 진력해 나가야 한다. 창가 학회 활동에서 멀어진다면 인생은 공허하고 외롭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선택한 광선유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불법은 생사일체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장대한 진흥빛으로 자 녀하늘을 물들이는 석양과 같이 숭고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2002년 11월22일, 월드 트리플 2-3쪽)

### 4) 이체동심의 단결에 기반을 둔 신심

**“총하여 니치렌의 제자 단나 등은 자타피차(自他彼此)라는 마음없이 수어(水魚)라고 생각을 해서 이체동심이 되어 남묘호텐게쿄라고 봉창하는 바를 생사일대사의 혈맥이라고 하느니라. 더구나 지금 니치렌이 흥통하는 바의 구극은 이것이니라. 만약 그렇다면 광선유포의 대원도 이루어질 것이니라. 더군다나 니치렌의 제자 중에 이체이심(異體異心)의 자가 있다면 예컨대 성(城)안에 있는 자가 성을 파괴하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서는 생사일대사의 혈맥상승을 위한 세 번째 조건으로 사회 및 조직 내 회원들간의 이체동심의 단결을 강조하시고 있다. 단결 없이는 일체중생의 성불을 가능케 하는 불법을 널리 유포할 수 없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개인의 혈맥상승을 위한 것이라면 세 번째는 개인뿐 아니라 전 사회의 혈맥상승을 위한 것이다. “자타피차(自他彼此)라는 마음없아란 말 그대로 “자신이나 타인, 이것 혹은 저것을 따지지 않고”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타피차”란 자신과 타인 사이에 차이를 만드는 차별적인 생각이다. 대성인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타인의 행복에 대한 무관심을 “자타피차”라고 표현하고 있다. 오늘날 일련정종의 법주인 닛켄처럼 자신을 일반 신도들과 구별하는 승려들의 차별적인 태도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닛켄과 일련정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 w.sokaspirit.org를 참조)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결여된 이기적이고 적대적이며 차별적인 태도로는 법화경의 혈맥을 상승할 수 없다. 인간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이기적이고 독선적이 되기 쉽다. 하지만 이체동심을 단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오만과 이기심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땀야 땀 수 없는 밀접한 인간관계를 묘사한 “수어(水魚)라고 생각을 해서”라는 표현처럼, 대성인께서는 모두가 서로 존경하고 도와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격려하시고 있는 것이다. 대성인은 이 구절을 장수인 유비와 뛰어난 재상(宰相)인 공명 사이의 관계를 “고기가 물을 만났다”라고 표현한 중국의 고전 삼국지에서 인용하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성인께서는 “이체동심이면 만사를 이루고 (어서 1463쪽)”라고도 쓰시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해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결이다. 이체란 모습, 성격, 태도 및 취향이 각각 다른 사람들을 말한다. 사람은 모두 독특한 개성과 배경을 가졌으며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취득한다. ‘동삼이란 그런 사람들이 같은 목적, 가치관, 희망, 염원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행동해 나가는 단결 속에서, 개인은 혼자서는 해 낼 수 없는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체동삼이아발로 부분과 전체, 개인과 집단을 조화시키는 원리인 것이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각자가 어본존을 믿으며 중생구제의 열망으로 광선유포를 향해 신심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한가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한다면 전체주의자가 되기 때문이다. 다양성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의 정신적 유대이다. ‘동삼이란 함께 어본존을 믿으며 신심을 한다는 뜻이다. 대성인께서는 “대원(大願)이란 법화경 흥동을 말한다”(어의구전 82쪽), “니치렌과 동의(同意)란다면...(어서1360쪽)”이라고 쓰시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동삼이란 대성인의 어유명이자 우리의 사명인 광선유포라는 커다란 목표를 세우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부처의 대원을 공유함으로써 ‘동삼의 마음을 이룰 수 있다. 제자 각자가 스승과 직결함으로써 민이 ‘이체동삼의 단결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통의 동지나 결속을 넘어 무너지지 않는 인재의 성, 행복의 성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 사제의 연대를 통해 이체동심의 단결을 구축

불법에서 살하는 화합승은 두 가지 예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물의 날실과 씨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직물을 짤 때는 먼저 베틀에 날실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날실 사이사이에 씨실을 넣어서 천을 짭니다. 여기에서 날실은 사제에 해당하고, 씨실에 해당하는 것은 동지입니다. 이 둘이 어우러져서 광선유포의 훌륭한 비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물에서 날실은 천의 전체적인 윤곽을 이루고 씨실은 무늬를 그려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회조직도 근본적인 사제정신이 투철하면, 제자들도 연대하여 훌륭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어서의 세계 1권 211쪽)

대성인은 “니치렌이 흥통하는 바의 구극은 이것이니라!”란 구절에서 묘법 유포를 위한 대성인의 궁극적 목표는 이름다운 인간의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시며, 우리가 꾸준히 이체동심의 단결을 넓혀나간다면 광선유포의 대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쓰시고 있다. 반대로 대성인 제자들의 단결을 파괴하는 이체이심(異體異心)의 자는 남묘호렌계묘의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방법의 대역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대성인은 이것을 “더군다나 니치렌의 제자 중에 이체이심의 자가 있다면 예컨대 성(城) 안에 있는 자가 성을 파괴하는 것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체이삼이란 사람들이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서로 다르며 각자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무의미한 오합지졸을 말하는데, 대성인께서 “사자신중(師子身中)의 충(蟲)이 사지를 먹는다. (어서 957쪽)”-사자 몸에서 태어난 벌레가 사지를 먹는다고 쓰신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삼은 본질적으로 대성인의 의도를 배반하는 것으로 오만과 이기심 때문에 생긴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이나 감정만을 생각하거나 자만에 빠지게 되면 불평, 불만, 미움, 질투 등이 만연해지고, 결국은 서로를 배반하여 참된 신심의 강적이 되는 것이다.

신심의 측면에서 볼 때 이체동심의 단결을 해 나간다는 것은, 대성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참된 불자의 조직인 창가학회 속에서 단결을 창조해 낸 3대 회장 선생님과 같은 마음을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의 승리의 원천이 있는 것이다.

반대로 스승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알팍한 감정과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체이삼'의 지들이다. 그들에게 성의 안전을 맡긴다면 아마 외부의 적들과 결탁하여 내부에서 성을 파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반역자 또는 사자신중의 별레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체동심의 단결을 방해하는 강적인 것이다.

도다 선생님께서서는 창가학회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단체라고 말씀하셨다. 학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광선유포를 위한 신심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이 점을 명심하고 조직을 이용하려는 자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창가학회를 파괴하려는 자들은 준엄한 인과이법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 모두 이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